

팔복동 산단, 청년친화적으로 변신

전주시, 산동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팔복동 노후 산단이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바뀐다. 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19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전주 제1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제1산업단지는 향후 산단 관련 정부부처 사업 공모 시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며 관련부처간 협업을 통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단지 개선에 필요한 국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공모 시 추가 발굴 사업으로 △청년용

복합지원센터 건립(110억원) △제1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328억원) △청년이 꿈꾸는 전주 문화예술터 건립(22억원) △청년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485억원) 등 총 4개 사업을 제안한 상태로, 제1산업단지에 오는 2023년까지 총 955억원이 추가 투입되면 전주 제1산단은 청년이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젊은 산단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비롯한 10개 연구기관과 대학교 연구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탄소융복합산업·드론산업융복합·자동차 자율주행 등 3개 분야의 TF팀을 구성, 향후 5년 이내 종업원 20명 이상, 매출규모 20억원에 이르는 청년기업 60개를 창업시켜 우수 유망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이번 선정으로 현재 제1산업단지에서 추진중인 △팔복예술공장 △철길명소화사업 △관광호텔 및 행복주택 건립 △팔복정로 신생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전주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969년 준공돼 50년된 노후산단을 개선하기 위해 청

년친화형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왔으며, △지자체의 혁신의지 △청년 일자리 창출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산업단지별 특성 △지역균형발전 등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지실사와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가장 오래된 산단이 가장 젊은 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지난 4년간 역점을 둔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한 예술공간과 이번 청년산단 지정으로 젊은 문화와 젊은 일자리가 꿈틀거리는 전주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6, 27일 이틀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북지역 초, 중, 고, 대학생 등 총 130명 64팀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IoT Connected Car(무선통신자동차) 창작 체험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3D 프린팅 활용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무선통신 자동차 창작 체험 캠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인재 육성방안으로 사물인터넷(IoT)과 3D 프린팅 융합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6, 27일 이틀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북지역 초, 중, 고, 대학생 등 총 130명 64팀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IoT Connected Car(무선통신 자동차) 창작 체험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ICT 스마트 디바이스 및 3D프린팅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로 3년째 열리고 있다.

진흥원은 첫날인 26일에는 △무선통신자동차 제작 교육 △3D프린팅 모델링 교육 △제작 자동차 기능 튜닝 및 외관 디자인 멘토링을 실시, 참가자들이 무선 통신 자동차를 제작하고 성능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27일에는 토너먼트 방식의 레이싱 경진대회는 △랩터기부문 △현장에 부분 △밀어내기부분 △현

장 투표로 우승자를 가리는 디자인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진흥원은 각 부문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가려 학생부문과 일반부문별로 각각 대상(1팀)과 최우수상(1팀), 우수상 (1팀), 장려상(1팀) 등 총 8팀을 선발 각 상금 50만원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사물인터넷과 3D프린팅을 동시에 체험해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3D프린팅을 이용해 무선통신자동차를 직접 디자인 해 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역 내 초등학생부터 대학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ICT 분야를 체험하고, 창업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이디어 캠프, 사물인터넷분야 교육 및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과 제품화 지원, 기술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불타는 양계장 신축현장 27일 남원시 산동면의 한 양계장 신축현장에서 불이 나 119소방대와 인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전주소방본부 제공>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 경찰 간부 계급 강등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의 검찰 조사 결과 중징계를 받았다.

정북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도내 한 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부터 7월 중, B순경 등 2명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A경감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사적인 말을 했지만, 성희롱은 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와 피해 부하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A경감이 업무 외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올해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 매진

야호 프로젝트·행복한 책 놀이터 사업 등 추진

전주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펼쳐 지난해 6월 유니세프로 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야호 프로젝트는 전주만의 특색있는 '전주형' 아동, 청소년 정책으로 야호아이숲, 야호생태놀이터, 행복한 책 놀이터, 야호학교, 부모교육 등의 사업이다.

전주시는 올해 생태놀이터 조성사

업으로 호풍골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고 건지산과 완산철봉에 '열기설기 배짱이 숲'과 '신기방기 도깨비 숲' 등 총 6개의 야호 아이숲을 조성했다.

또한 전북도교육청, 세이브더칠드런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학교라는 것에 착안,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야호 학교놀이터 3곳을 개장해 지금까지 총 5개의 야호 학교놀이터를 조성했다.

이외에도 기존 도서관을 개방형 창의 도서관으로 바꿔 도서관이 놀이터가 되는 '행복한 책 놀이터' 사업

도 2021년까지 11개 시립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전개 중이다.

창의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야호학교는 이혜 및 인지도가 향상되어 지역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 매체들과 타시군 벤치마킹 요청도 증가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전국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내년도에도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주형 창의교육 인식 확산과 사업 확대에 노력하고 청소년에 자치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야호학교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내년 '에너지 디자인 3040' 펼치기로

2025년까지 절약과 효율 등 5대 전략 30대 과제 추진 신재생에너지 28억원 확보 212곳 대상 태양광 등 설치

전주시는 내년, 에너지 자립운동인 '에너지 디자인 3040'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율을 30%, 전력 자립율을 40%까지 달성해 에너지자립 청정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이를 위해 △절약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 등 5대 전략과 3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한 우선사업으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에너지전환 박람회 △초록도시 공모전 △에너지 독립운동 △에너지전환 생활기술 워크숍 △에너지전환 시민포럼 △에너지 스마트효율기기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시범 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지역 에너지계획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일반주택 177가구(531kW)와

공공주택 416가구(124kW), 공공건물 1개소(120kW)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펼쳐왔으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조명 1000여개를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 취약계층 가구 등 19개소를 대상으로 쿨루프(Cool Roof) 사업도 전개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해왔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로 이동오염 원인인 노후경유차 및 친환경차량 보급사업으로 올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963대, 운행경유차량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71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60대, 전기자동차보급 176대, 전기이륜차 22대, 천연가스 시내버스 30대를 보급했다.

시는 2018년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19년에는 '에너지디자인 3040' 정책추진과 지역 에너지계획의 민간분야 사업을 기

획·총괄하는 '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28억원을 확보, 산업시설과 주택, 공공시설 등 총 212개소 대상으로 태양광 183개소(884kW)와 태양열 24개소(383㎡), 지열 5개소(88kW)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참여와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전주시민햇빛발전소의 보급 확산을 위해 호지배수지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에너지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을 위한 목표에 있어서 민간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행정과 시민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에너지자립도시 전 주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택시에서 말 걸어 교묘하게 현금 훔쳐 달아난 30대 입건

택시에서 말을 걸어 교묘하게 돈을 훔쳐간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택시에 승차해 운전기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콘솔박스(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모씨(31)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47분경 군산시 지곡동 한 노상 앞에서 택시에 승차해 운전기사 B모씨(57)에게 목적지를 수시로 바꾸고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혼란스럽게 하고 콘솔박스에서 현금 14만원을 훔쳤다.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모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A모씨는 이미 동종 수법으로 평택유치장에 입감상태였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해남서 지인 숨지게 한 후 시신 매장한 50대 붙잡혀

지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땅에 매장한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A모씨(59)는 지난 9월 지인인 B모씨(58)를 숨지게 한 뒤 해남의 한 간척지 주변에 묻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B모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경 해남군 산이면 간척지 인근 골포장 건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B모씨는 목에 노끈이 묶인 채 땅 속에 묻혀 있었다.

타살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 B모씨의 지인인 A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경 광주에서 A모씨를 붙잡았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올해 재난관리 잘했다

업무분야서 성과 인정받아

전주시가 올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안전·재난관련 업무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5월 전북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으며, 정부가 실시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자살예방, 교통안전 등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자살예방과 낙상예방, 교통안전, 방범폭력예방, 학교어린이안전 등 6개 분야별 안전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각종 손상사망률과 5대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자살사망률과 5대 범죄 발생률, 교통사고가 각각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게 됐다.

시는 민간기업 참여와 시민체험단 확대 운영 등 훈련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했고 현장 훈련 참여자들의 숙달 정도가 높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사항들이 정확하게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시는 한여름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응 TF팀을 구성, 448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75개소 그늘막 설치와 도로 살수, 얼음 비치 등을 했다.

또, 태풍특보 발효에 따라 재난대책본부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비상별 안전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각종 손상사망률과 5대 범죄 발생률을

의정부 미성년 성폭행 여강사 징역 10년형

지난 6월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강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4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모씨에 대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해당기관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병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모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양주시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제자

B군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B군은 지난 6월 피해 아동과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B군 등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모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증거와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했다.

A모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석훈 기자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원주>
봉돈읍 오항마을 150000**

(12월 28일자)